

통일 바람개비

'통일바람개비'란 '통일의 바람을 일으키는 청소년들의 개성만점 비상(飛上)!'을 뜻합니다

발행인 || 김진원
제작·편집 || 청소년평화통일기자단
발행처 || 우리겨레하나되기부산운동본부
www.bskrhana.org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2동 1177-9 세종 B/D 5
전화 || 051)502-0615 FAX || 051)504-6016
기사교정 || 성은진 김경화 박정민
인쇄 || 부산일보사

창간 특집 인터뷰 설동근 부산광역시 교육감



“남북의 차이를 인정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대동강과 평양 시내

지난 6월 25일 청소년평화통일기자단 소속 김윤정(해운대여고 1) 외 10명은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설동근 교육감을 만났다. 어릴 적 반공수업의 영향으로 북측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으나, 두 차례 방북을 계기로 북측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해소할 수 있었다는 그의 말에 기자단은 더욱 귀를 기울였다.

Q 지난해에 평양을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8월과 12월 두 번 갔다 왔습니다. 8월에는 평양항생제공장 준공행사 일정이었고, 12월에는 북녘수해동포돕기성금으로 북에 지원한 급식기구가 잘 활용되고 있는지 둘러보기 위해 다녀왔습니다.

Q 인상적인 경험과 에피소드를 말씀 해주십시오.

– 김일성종합대학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참으로 반갑

게 인사를 하며 우리를 맞아 주었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공부한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다른 청소년들도 자기계발에 매우 적극적이며 장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한다고 관계자 분께서 귀뜸해 주시더라고요.

Q 통일을 위해서 어떤 교육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전체적인 교육방향은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도록 진행돼야 합니다. 북측에 대해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우리 민족은 지능이 우수한 민족입니다. 민족의 결집된 힘으로 세계적 강국이 되려면 남과 북의 뛰어난 역량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교육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부산광역시교육청은 통일교육 방향

정립에 관한 연수를 실시하며 가치 편향적이지 않은 진정한 통일 교육을 실천해 나갈 계획입니다.

Q 청소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 꿈과 비전을 가지십시오. 무작정 공부하는 것은 목적 없이 항해하는 배와 같습니다. 목표를 가지고 공부하면 꿈과 희망을 훨씬 앞당겨 실현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우기 위해 폭넓은 독서를 권합니다. 끝으로 우리 청소년평화통일기자단처럼 다른 많은 친구들도 통일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통일을 향한 여러분의 순수한 열정과 지속적 관심이 우리나라의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데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우도양 기자 drzzang1@hanmail.net
배금영 기자 bgy5555@hanmail.net



단장 인사



김진원
청소년평화통일기자단 단장
우리겨레하나되기부산운동본부 상임대표

무한열정으로 통일바람 부르는 <통일바람개비>

'청소년평화통일기자단'이 첫 발걸음을 땀 4월만 하더라도 기자단은 취재며 기사작성이며 기자활동의 모든 것이 다 새롭고 서툴러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서툰 모습도 청소년평화통일기자단 학생들의 '통일기자가 되기 위한 열정'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통일살농사, 6.15기념 걷기대회 등 통일행사를 취재한 것은 물론, 김대중 전 대통령, 부산시 교육감, 교육위원회 의장 등 남북화해협력을 위해 노력한 분들을 인터뷰하기도 했고, 금강산 기행을 통해 북녘사람들과 만나고 생활을 접하는 등 생생한 통일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곳

이라면 어디든 가리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게다가 틈틈이 기사작성, 사진촬영 방법 등 기자교육을 통해 기자로서의 소양과 능력도 갖추어 왔습니다.

지난 5개월 간 바쁜 학업과 병행하며 여러 노력을 기울인 결과, 기자단에 참가한 청소년들은 어엿한 기자로서의 모습을 갖추었고, 드디어 청소년평화통일신문 <통일바람개비>가 이 세상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번 신문을 내기 위해 기사를 밤새워다 쓰고 기뻐했던 기자, 인터뷰 취재를 앞두고 무척이나 긴장했던 기자, 기사를 마감시한 내에 제출 못해 안절부절 못했

던 기자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접하며, 청소년들의 때 묻지 않은 순수함과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전문적인 기자들이 만든 신문에 비해서 엉성해 보일지라도 청소년평화통일신문 <통일바람개비>는 청소년들이 직접 통일을 취재하고 담은 생기 넘치는 통일이야기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남북이 때론 갈등하고 때론 긴장하더라도 청소년들의 통일에 대한 열정은 언제나 무한할 것입니다. 청소년평화통일기자단의 <통일바람개비>와 함께 '우리들의 통일'을 신바람 나게 일구어 봅시다.